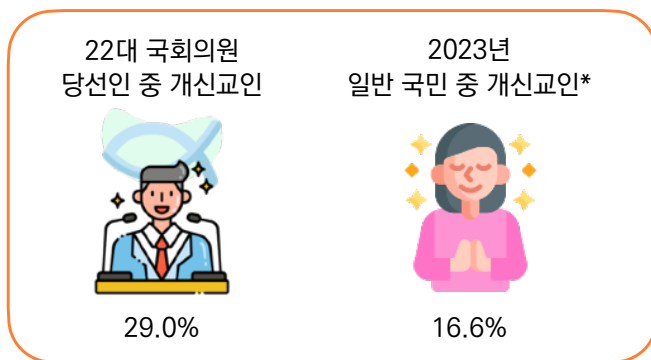




##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인구 특성]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개신교인 29%!

- 4.10 총선이 끝나고 이제 5월 30일이면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다.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의 인구 특성을 살펴본다.
- 최근 발표된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명 중 3명(29%)이 개신교인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대외적으로 신앙을 밝힌 당선인을 중심으로 집계한 결과 총 87명이 개신교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선인 300명 중 29%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 이와 같은 국회의원 당선인의 개신교 비율은 2023년 기준 일반 국민 중 개신교인 비율 16.6%\*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그림] 개신교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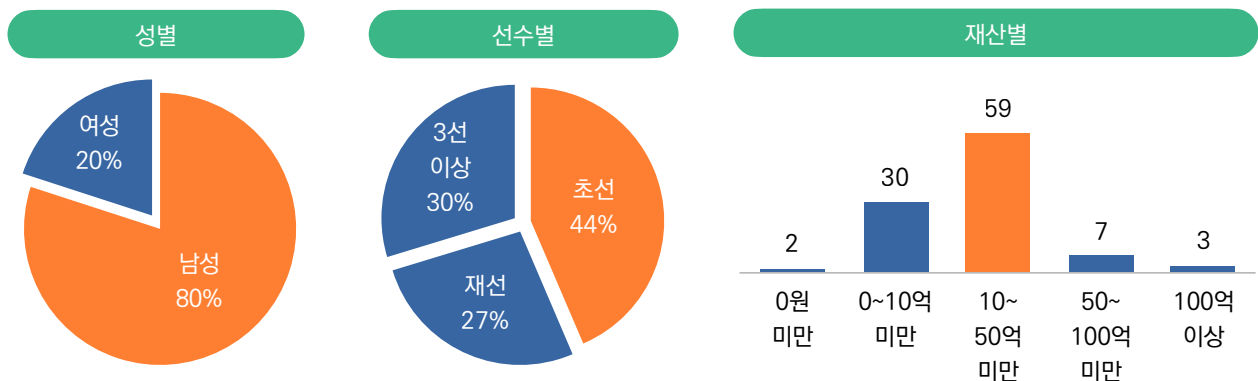
※출처 : 국민일보, '국회의원 당선인 29%가 개신교인... "악법 저지 방파제 될 것"', 2024.04.18.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3345402>)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서리포트,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보고서' 2023.

##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여성 20%, 초선 44%, 재산 10억 이상 68%!

- 당선인의 성별로는 남성 80%, 여성 20%로 여성 당선인이 역대 최다 비율을 기록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34%, 2023 예정통합 여성총대 비율은 3%이다.
- 선수별로 보면 초선이 44%로 가장 많았고, 3선 이상 30%, 재선 27%로 조사됐다.
- 재산의 경우 '10~50억 미만'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10억 이상'은 68%, '50억 이상' 자산가도 10%로 조사됐다.

[그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인구 특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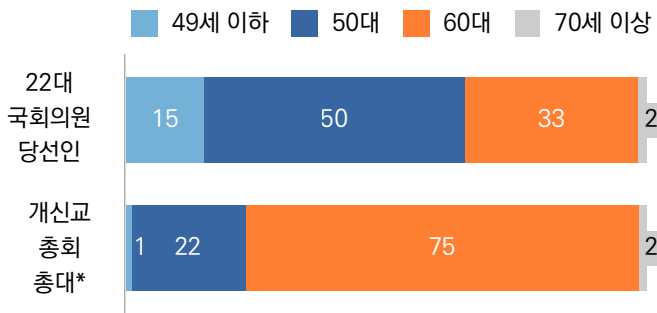
※출처 : 연합뉴스, '[4·10총선] 22대 국회 당선인 평균연령 56.3세...초선은 131명', 2024.04.11.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1163000001?input=1195m>)

Note) 합계가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평균 연령 비교, 국회의원 56.3세 vs 개신교 총대 62.6세!

- 국회의원과 총회 총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둘 다 대의제를 따른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국민(교인)이 선출한 대표 자로서 국민(교인)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나 정책(교단 총회의 의사·정책) 등을 결정하는 구조를 띠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22대)’ 당선인과 교회의 대표 격인 ‘총대(105회 예정통합 기준)’의 평균 연령과 연령별 구성을 비교해 보았다.
- 연령별로 보면 이번 국회의원 당선인은 50대가 절반(5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33%, 40대 이하 15% 등의 순이었고, 개신교 총대의 경우 60대가 75%로 전체 4명 중 3명에 달했고, 다음으로 50대 22%, 70세 2% 순이었다.
- 평균 연령으로 국회의원은 56.3세, 개신교 총대 62.6세로 총대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연령별 구성비: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vs 개신교 총회 총대 (%)



[그림] 평균 연령

: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vs 개신교 총회 총대



※출처 : 연합뉴스, [4·10총선] 22대 국회 당선인 평균연령 56.3세...총선은 131명, 2024.04.11.(<https://www.yna.co.kr/view/AKR20240411163000001?input=1195m>)

\*예정 통합 105회 총대 연령 분포(2020년) 기준. (예장뉴스, 2020.08.24.)